참 편리한 교회 안에서의 배교(背敎)

(히10:26~39)

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참 편리한 교회 안에서의 배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참 편리한 교회 안에서의 배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너무나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형제들에 대한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교를 하지 말 것을 간절히 사랑으로 이렇게 권고와 경고, 그리고 협박처럼 보일 정도의 무서운 말까지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지요.
사실은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설령 배교를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예수

님을 짓밟는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선 개화기, 그러니까 1800년대 말, 그때 굉장히 심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또 일제 강점기 때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한 박해 이야기 속에서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들고 다니면서 박해를 합니다.
교회의 모임이 끝나고 나오게 될 때, 교회 출입구 땅바닥에다 예수님 초상화를 깔아놓고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발로 딛고, 내가 앞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살려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총칼을 들고 서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일말의 주저도 없이 쉽게 그 초상화를 밟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무서워서 못 견뎌서 발로 짓밟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 자신이 아니다, 이 사람이 그린 건데,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를 일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를 합리화하고 밟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습니까? 이 그림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니까 밟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어쨌든 그 그림을 가져온 사람의 마음에는 그 그림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뿔 달린 예수님을 그렸다 하더라도 그 뿔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그 존재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밟으면 안 되죠.
합리화시켜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순간에 무서움을 이길 수 없어서 밟았으면 회개하는 수밖에 없죠.
신앙에서 합리화란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배교를 염려하면서, 이제 우리가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또 기록합니다.
6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맛을 본 자로서 떨어져 나온 자, 속죄의 가능성이 없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짐짓'이라는 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라는 거예요) 죄를 범

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맹렬하게 태울 불만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일단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구원으로부터 우리에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원이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뒤에 떨어져 나온다'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의도적으로 범한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루터가 Daily Baptism을 얘기하고 사도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또 행위로써 범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한 번 세례를 받아서 세례의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세례에서 물에 빠져서 옛사람이 죽고 건짐을 받아서 새사람으로 사는 그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돼야 되는 것이고,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참 기독교인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참 기독교인.
그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과 잇대서 생각하면, '짐짓 죄를 범한즉', 일부러 죄를 범한즉 이라는 말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걸 거예요.
말하는 걸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글이 그와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딴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믿음의 중요성을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히브리서 저자에게도 같은 생각인데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는데, 도대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만일에 행동으로 십계명을 어기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형의 말씀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여러분이 범한 행위를 회개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회개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가 나왔을 때 우리가 행위를 회개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겁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행위를 잘못했을 때 행위를 회개하지 말라는 거냐?
행위를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회개는 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런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닌데, 행위가 잘못됐다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잘못했을 때는 행위를 회개하지 말고, 그 잘못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돌아가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이 바로 믿음의 차원이고 믿음의 자리에요.
우리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맞아요, 행위가 잘못 나왔으면 내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보라는 얘깁니다, 행위를 회개하지 말고.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사역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되고 짓밟는 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을 회개한다는 게 뭘까요?
이걸 우리가 좀 더 근원적으로 한 번 살펴봐요.
구원받은 자로서 잘못이 일어날 때마다, 내 손과 발끝에서 잘못된 열매가 맺힐 때마다 끊임없이, '아, 뿌리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뭔지 알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돌아가 봅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 어떤 인간의 모습이었나.
타락 이전의 상태는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선악을 판단하는 여러분 자신을 잘 관찰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내게 유익한 상황이다 아니다, 판단할 때 그 판단되는 대상이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일부러 판단하지 말아보세요, 판단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상태는 선악을 판단하지 않게 되면서 마음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선악 판단이 중지되었고 멈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 전 아담의 삶은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아담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거미의 몸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의 삶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에 대해서 선악 판단을 합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고 기회만 있으면 어떡하든지 내가 해를 입힐 것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벌써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해를 입히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악 판단을 하게 되면서 마음 안으로 들여놓은 것으로부터 내 삶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큰 비즈니스맨이 될 것이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맨이 좋다고 하는 판단이 생기면서 마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꿈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내 마음 안에 들여놓은 꿈과 비전으로부터 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음으로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생명이라고 그럴 때, 심지어 원수조차도 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내 평생 동안에 수십 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내가 원수를 갚게끔 생각하게 하고 활동하게 한다면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 '벤허'에서 벤허가 노예선으로 붙들려와 노를 젓고 있는데, 그 감독관이 벤허의 눈을 보면서 '너는 증오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그 증오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증오가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원수를 갚겠다는 증오심으로.
그래서 증오가 너를 어떤 역경에서도 살려낼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생명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타락 이전의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그분은 안 흘리셔도 되요, 내가 흘려야 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 인격 속에서 흘러나와야 될 게 뭡니까?
잘못된 피, 잘못된 생명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시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내 생애,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나의 삶이 거미의 몸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술술 풀려나오면서 나의 행동과 말이 나오고 살아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고 에덴의 삶인데,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서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이게 잘못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서 완전히 쫓겨나가시고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스러운 갓 태어난 아기를 볼 때, 내 아들이고 딸이에요.
거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내 마음 밖에 놔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한 피조물인데, 내 마음 안에 들여놓으면 드라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내 마음 안에 하나님만이 생명이 되셔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그 이쁜 아기가 탈취하고 뺏고 있으니까.
그러니 드라큘라에요, 피가 곧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흡혈하고 있고 내 인격의 피를 흡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진 거지만, 내 마음 안에 들여놓으면 다 드라큘라인 겁니다, 흉악한 흡혈귀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유효한, 효과 있는 사건이 되려면 우리가 뭘 반성해야 되는 겁니까?
왜 지금 십계명을 어기는 행동이 나오게 되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사도바울이 서신 속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명령형으로 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무효화시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그 십자가사역이 헛된 걸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 십자가사역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십자가가 주술인 것처럼 내 죄를 속죄함 받았다, 하고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린 다음에는 그대로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 마음 바깥에 놔둬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들을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 안에 이 세상의 피조 된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효화돼버린 거죠.

십자가에서 그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은 건 분명한데,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금 그 전에 지었던 죄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로 돌아가는데,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 놓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하고, 마음 놓고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마음 놓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을 모셔 들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였을 때 누구에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요청해라'라고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건강이 내게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내가 사도바울의 입장이 돼가지고, 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낫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병 낫도록 안수기도 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 한다든지 목회를 부흥시켜보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목회부흥에 대한 꿈이 있고, 목회부흥에 대한 꿈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배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무산시켜버리고 무효화시켜버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 히브리인들의 집의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문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은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입구가 있어요.
그 입구에 주님의 흘리신 피를 발라야 돼요.
그 피를 발라서 어느 것도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 행동이라도.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도, 내 삶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
심지어는 이웃을 위해 먹을 것을 주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웃을 위해 먹을 것을 주는 그것이 이웃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사랑이 완벽할 때 가능한 부차적인 계명이에요, 부차적이라고 해서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사랑이 완벽할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사랑이 잘못된 것으로 알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형의 말씀들은 거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명령형의 말씀들을 어겼다고 회개한다면, 그건 어떤 게 되느냐 하면, 자!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둑질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고 내가 간음을 안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주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을 한 거라고 하셨는데, 내 힘으로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행위를 회개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림으로써, 그리고 선악 판단을 하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써, 또 선악 판단을 해서 마음에 이 세상 것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장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이런 행동이 나왔으니 다시 한 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을 몰아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놓고 마음 안에다가 이 세상 것을 집어넣어 놓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소원과 바람과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들어달라고 하고, 행동의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교라는 겁니다.

결국은 히브리서 저자가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고 하는 사도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뭐에요?
결국 십자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께로 우리 마음을 끌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것은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생활하다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그냥 완전히 포화상태로 마음에 배부르게 잔뜩 담은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바람과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배교하기가 아주 쉽죠, 배교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배교하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누가 죽인다고 합니까, 박해를 하고 탄압을 합니까?
세상을 담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 세상 담은 것을 고집하고 나가는 것, 이 배교가 용서받지 못할 배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려가서 읽은 부분에 '재산을 다 뺏겼는데도 너희가 기뻐했다, 왜 그랬느냐? 영구한 하늘의 재산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에요.
'하나님과 하늘을 마음에 품었어야 박해를 이길 수 있었고,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에 돈이 좋으면, 결국은 돈이 좋은 상태가 이미 배교입니다.
그래서 재산 다 뺏겼으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할 때에 배교하는 건 그건 배교가 아니에요, 배교의 결과지요.
이미 재산을 마음에 넣고 있는 것이 배교고, 이 육체의 목숨을 마음에 넣고 있는 것이 배교입니다.

예수님 초상화 놓고 발로 밟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해서 무서워서 밟고 지나간 이때가 배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배교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탄압이 없는 지금도 예수님 초상화를 밟는 그 당시와 같은 배교의 열매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런 열매를 낳게 하는 배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발로 밟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승천하신 예수님을 담고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중요하다고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기 싫어서.
결국은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는데, 누가 행위로 하라고 합니까?
행위로 이 세상 것을 다 버리라고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에서 버려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에요.
내가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만이 들어와야 된다, 그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가능한가?
십자가 붙잡고 버벅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가다보면 가능할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성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 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길어지고.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순간에만 하나님은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오죽 했으면 사도바울이, 십자가에 달리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다는 게 뭐에요?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고, 십자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게 들어온 상태를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 이제는 속죄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빼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빼내지 않은 채 십자가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마음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니, 무슨 수로 속죄를 합니까?
속죄할 다른 제사가 존재하질 않지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배교의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 들어와 계셔야 된다, 라고 믿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교회 안에서 참 쉽고 편리한 배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